

목 차

1장 지금 이 연구가 필요한 이유	
연구의 목적과 개요	2
왜 생태적 감수성이 필요한가?	3
왜 일상 속 생태적 감수성인가?	4
왜 동물권 이야기가 필요한가?	5
개인적인 이유지만 많은 사람이 공감했으면 하는 이야기	7
2장 <일상 속 소소한 감동> 콘텐츠 이야기	8
1) 답고자 하는 이야기 요소 탐색 : 수집한 자료에서 도출된 이야기 요소	9
2) 일상 속 생태적 감수성편(1편) 해설	20
3) 일상 속 생태적 동물권 이야기(2편) 해설	30
3장 독자의 이야기	
1) 설문 조사	40
2) 설문 조사 분석 결과	41
3) 인터뷰	53
4) 독자의 이야기 갈무리	61
4장 결론과 제언	62
참고문헌	65
부록1: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때	66
부록2: 1편 - 일상 속 생태적 감수성의 작업 과정물	69
부록3: 2편 - 일상 속 동물권 이야기 작업 과정물	71

1장

지금 이 연구가 필요한 이유

연구의 목적과 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사람들이 일상에서부터 ‘생태적 감수성’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물권에 공감하고 동의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상 속 생태 감수성과 동물권’을 주제로 웹툰 형식의 파일럿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였다. 웹툰의 이야기 요소와 그 요소의 근거와 결정적인 인사이트를 얻은 자료들을 정리하였으며 파일럿 콘텐츠 각 컷에 대한 해설을 2장에 구성하였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일상 속 생태적 감수성’과 ‘동물권’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4장에서는 SNS를 통해 콘텐츠를 접한 독자 대상으로 이 콘텐츠가 동물권 인식과 생태적 감수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측정하는 설문과 인터뷰 설문을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5장에서는 본 연구를 진행을 통해 이 연구가 지니는 의미와 함께 향후 생태감수성에서 동물권 인식 향상으로 이어지는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왜 생태적 감수성이 필요한가?

‘생태(ecology)’라는 뜻의 접두사로 자주 쓰는 에코(eco) 어원은 그리스어로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oikos’에서 유래했다. 즉, 모든 생명과 무 생명은 지구라는 하나의 집에서 사는 구성원이다.

‘생태적 감수성’이란 ‘자기 주변의 생태적 상황, 변화, 및 그 의미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감수성은 인지와 정의의 경계에 위치하며,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의 상호작용 결과라고 할 수 있다.¹⁾ 우리의 삶이 자연이나 못 생명과 서로 연결돼있으며, 자연과 더불어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도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나눔과 공생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생태적 상상력’은 ‘생태적 감수성’과 짝을 이루는 개념으로 이 외부 세계에 대한 능동적 대응 또는 관계짓기 능력을 의미한다.²⁾ 그리고 ‘의미 있는 타자’(자연, 비인간 동물, 식물, 타인)에 대한 사랑이다.³⁾

인간은 생태계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의 구성원으로 비인간 동물, 식물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인간은 생태계의 일원이라는 점을 잊은 채 인간과 비인간 동물이 공존해야 하는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이 아닌 생명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생태계의 기본 원리는 공생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우선하는 경제 논리를 ‘선(善)’이라 여기며,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과 생명에 대한 몰지각과 몰이해로 공생이 아닌 지배를 선택했다.

결국 공존·공생·공감을 잃어버린 사회가 도래하며 사람과 동물을 대상으로 잔혹한 범죄와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자신의 이익과 생명이 소중한 만큼 타자(자연, 비인간 동물, 식물, 타인)의 생명 존엄성도 중요하다는 생태적 가치관과 생태적 감수성(생태 감수성) 회복을 통해 인간이 자연과 맺어온 관계에 대해 성찰하고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1) 이재영, 『한국 환경교육의 흐름 3』, 공주대학교출판부, 2013, 10-11쪽.

2) 상계서, 10-11쪽.

3) 노희정, 『생태학적 자아의 정립과 생태학적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 환경철학16권0호, 2013, 71쪽.

왜 일상 속 생태적 감수성인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곁에 자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시에서 생태적 감수성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생태적 감수성은 도시를 떠나야 만날 수 있는 자연(산, 들, 강, 바다 등)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일상 속 생활반경에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비인간 동물, 키 큰 나무, 키 작은 나무, 풀꽃 등의 생명과 하늘, 바위, 흙, 모래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들도 자연의 일부이며 일상생활에서부터 이 존재와 공존해야 한다는 인식,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 일상을 돌이켜 보면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받지 못한 사례를 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대 받고 죽임을 당하는 길(에서 생활하는)고양이, 보호자에게 버려진 유기견, 산책을 평생 하지도 못한 채 1m 목줄에 묶여 살며 반려견으로 여겨지지 않는 개, 인간을 위한 약과 화장품 등의 개발에 이용되는 실험동물, 식탁 위에 오르는 육고기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생산한다는 명분으로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착취되는 동물, 수족관 상점에서 상품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열대어와 격리되어 작은 컵 속에 갇혀 사는 열대어, 생태적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환경에서 오락거리로 갇혀 사는 동물원의 동물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전구로 휘감겨 밤도 낮인 줄 알고 광합성을 하다가 생체리듬이 깨진 가로수(나무도 밤에 잠을 잔다) 까지.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 모두가 생태적 감수성의 결여로 발생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생태적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증거이다. 사람이 각자 갖고 있는 생태적 감수성이 조금이라도 향상된다면 비인간 동물을 비롯한 인간이 아닌 생명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

더 나아가 생태적 감수성은 환경문제(기후 변화,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 미세먼지, 물 오염 등)에 대한 관심과 실천으로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물복지 육고기와 계란을 구입하고, 집·학교·직장에서 불필요한 전등을 끄다던가, 양치질을 할 때 양치컵을 쓰다던가,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거나, 일회용품을 자제하고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는 등의 일상

생활 속 꾸준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관되게 반(反)환경적인 사람보다 비(非)일관되게 친환경적인 사람이”⁴⁾ 지구생태계에 도움이 된다.”

사람들에게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생태적 감수성을 일깨우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채널과 환경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왜 동물권이 이야기가 필요한가?

우리 사회는 여전히 물건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18세기 후반 이후 인권이 발전해왔지만 인간에게 통하는 권리로 각인되어 있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공장식 축산, 동물실험처럼 동물의 생명을 착취하는 방식이 더 확산되었고, 그에 따라 동물이 처한 상황은 더욱 나빠져 왔다.⁵⁾

그러나 최근 들어 보편적 인권사상이 동물에게 확장되어 가는 현상이 유럽 등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생명 존중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우리사회의 논의나 인식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최소한 인권 중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권의 측면에서라도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생명권은 인간의 권리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 사회 안에서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와 동물을 존중하는 태도는 연결되어 있다. 모든 존재가 목적이란 인식과 모든 생명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에 정착됐을 때 인간을 위해서도 비인간 동물을 위해서도 올바른 길이라고 본다.⁶⁾

⁴⁾ 김산하, 『김산하의 야생학교』, 갈라파고스, 2016, 208쪽 인용.

⁵⁾ 하승수, 동물권 담론이 기존 법에 던지는 질문들,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자료집, 2013, 54쪽.

⁶⁾ 하재영,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 창비, 2018, 281쪽.

동물이 대접받는 나라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동물 권리를 향상하면 인간의 권리도 향상된다. 동물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나라는 이미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법적으로 환경적으로 탄탄하게 전제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동물권 증진은 인권 증진과 함께 추진을 해도 상호 작용을 하면서 더 좋아진다. 근본적으로 생명 존중을 중시하는 사회가 된다. 마하트마 간디가 ‘한 국가가 얼마나 위대하며 도덕적으로 진보했는지는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2018년, 2019년은 동물학대 이슈가 유난히 많이 보도됐다. 그만큼 동물과 관련한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사람의 관심과 슬픔과 분노를 일으키고 행동하게 하고 있다. 시민에게 공장식 축산이나 동물학대로 고통 받는 동물의 잔인하고 자극적인 사진, 영상으로 동물권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작년 11월 27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도살장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던 개가 잠시 튀어나가 옆에 있는 자신의 새끼에게 젖 물리며 죽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개 도살을 자행하는 사람들 개 도살을 멈추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고 보기만 해도 고통스럽고 잔인한 사진과 영상이 SNS를 타고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참여 인원 20만 명을 넘겨 청원에 성공했다. 이 일은 군포의 개 농장에서 직접 목격한 일로 알려졌지만, 후에 밝혀진 사실은 어미개와 새끼개가 고통을 당하는 잔인한 사진과 영상은 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개의 사진이 우리나라 개 농장의 현실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결국엔 이런 동물학대, 식용견 이슈의 진정성과 동력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분을 사게 하는 시청각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리는 이 방법은 시민을 분노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긍정적 영향력이 있다. 다만 이런 방식이 지속된다면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쌓이게 만들고 비슷한 사진만 나와도 피하게 되고 보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거부감을 조성하게 된다. 동물권 이슈의 본질은 옳은 채 자극과 무력감이 남게 된다. 곧, 동물권 이슈를 외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동물권 이슈에 대해 시민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동물권 이슈에 대해 근본적이면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동물권의 출발이 되는 ‘생태적 감수성’부터 콘텐츠를 제작하고 확산시키고 축적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시민과 만날 수 있는

⁶⁾ 하재영,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 창비, 2018, 281쪽.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도 기획되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동물권을 넘어 언젠가 모든 존재의 생명권이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 낙관한다.

개인적인 이유지만 많은 사람이 공감했으면 하는 이야기

환경교육활동가로서 공장식 축산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그 당시에는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다. 지금에 와서 부끄럽지만 그 때만 해도 동물의 인간의 도구여도 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다.

왜 동물권을 생각하게 됐을까. 인간종으로만 이루어진 가족에서 종은 다르지만 극진한 대접을 받기도 하는 ‘반려견’이지만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될 수도 있 ‘개’라는 동물 때문이다. 우리 가족(모모, 라희, 남편, 나)은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다. 모모와 라희는 한때 각자의 사연이 있는 유기견이었지만, 지금은 엄마와 아빠라는 지구가 생겨 유기견의 딱지를 떼고 행복한 반려견이 되었다. 나와 남편에게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를 세상의 전부로 알고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존재와 반려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더불어 잊고 살았던 생태적 감수성도 회복하게 되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명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래서 동물권에 관심이 생겼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생태적 감수성’부터 시작해서 동물권으로 이어나가고 싶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8년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반려동물의 수는 약 12만 마리에 이른다. 2017년 나와 남편이 줄인 유기동물의 수는 단 한 마리(모모)이다. 2018년에도 단 한 마리(라희)이다. 두 명에서 2년 동안 겨우 두 마리 줄였을 뿐이다. 유기동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반려동물을 버리지 않게 하는 생태적 감수성의 회복과 생명 존중의 가치관을 갖게 해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방향이라고 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년에 가장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인 ‘상암이 사건’이 있었다. ‘상암이’에게 인간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동물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2장

〈일상 속 소소한 감.동〉 콘텐츠 이야기

본 연구에서는 ‘일상 속 생태감수성’, ‘일상 속 동물권’ 중심으로 파일럿 콘텐츠 2편을 제작하였다. 1편은 ‘일상 속 생태적 감수성’을 주제로 10컷을 제작하였다. 인트로 컷으로 바쁘고 메마른 일상을 보내는 직장인의 모습을 담고자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메시지를 나타내고자 했다. 2편은 길고양이, 수족관, 떠돌이 개를 주제로 한 ‘일상 속 동물권 이야기’를 소소하게 나타내면서 모든 동물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복해야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연구 종료 후 일상 속 동물권 이야기부터 생태적 감수성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다음 장에는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수집한 자료에서 인사이트를 받은 지점을 정리하였다. 그 요소를 녹여내서 스토리 윤곽과 콘티, 일러스트가 산출되었다. 언급된 자료 외에도 많은 자료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적용의 근거가 되었던 자료들 위주로 갈무리하였음을 밝힌다.

1) 담고자 하는 이야기 요소 탐색 : 수집한 자료에서 도출된 이야기 요소

연구를 시작하며 논문,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단행본, 동화책, 기사, 기고문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접하면서 거의 모든 자료가 웹툰의 이야기 요소의 재료가 되었지만 그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내용을 정리하였다.

요소	인사이트
<p style="text-align: center;">동등한 생명체라는 인식</p>	<p>● 헨리 솔트 - “모든 동물은 혈연관계에 있다”⁷⁾</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 하자는 ‘동물권’ 시각의 시작 • 인간과 동물은 ‘혈연관계’로서 하나의 공동체 •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상호작용도 커지고 있음 • ‘인도주의’의 범위를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동물로 확장하여 동등한 관계로 생각할 때 인간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
	<p>● 모든 생명체는 동등한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그들만의 개별성이 있다.</p> <p>애니메이션 ‘언더독’(오성윤, 이춘백 감독 2019.1.16. 개봉)⁸⁾에는 견공이 등장하여 다양한 동물권 이슈를 보여주었다. 동물권에 대해 잘 몰랐던 관람객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에 충분한 작품이었다.</p>

요소	인사이트
<p style="text-align: center;">비인간 동물의 개별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 아닌 동물의 개별성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조열의 희곡 「흰둥이의 방문」에서 개인 ‘흰둥이’의 외양과 나이, 이름을 구체화 시켰다는 점에서 ‘흰둥이’의 개별성 강조⁹⁾ • 제인 구달이 그녀가 연구하던 침팬지에 ‘데이비드 그레이 비어드’라는 이름을 붙여주자 많은 연구자로부터 비난 받음¹⁰⁾ •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가 풀잎을 이용하여 흰개미를 잡는 영상을 보여주기 전까지 제인 구달이 말한 동물의 개별성(아이덴티티)은 이단적인 이론이었음¹¹⁾ • 거북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우리가 먹는 고기는 고기 이전에 풍부한 감성과 지적능력이 있는 우리와 비슷한 ‘생명체’라는 것¹²⁾ • 지구를 정복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생명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 사라진 현 시스템에 대해 고민 필요¹³⁾
<p style="text-align: center;">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류가 지구상에서 도덕관념을 아는 유일한 동물이라 믿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부드럽게 역설했다.”¹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뉴질랜드에서 열린 동물학대방지협회 회의에서 개나 늑대도 도덕지능(Moral Intelligence)이 있어 사리분별, 친구를 사귀거나 원한을 품을 수 있고 심지어 사람처럼 당황하거나 웃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¹⁵⁾ • 이 발표에서 동물이 공명정대한 행동을 하고 감정과 지적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⁶⁾

요소	인사이트
	<p>● “개가 우리의 삶 전체는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한다.” - 로저 캐리스(동물사진작가)¹⁷⁾</p> <hr/> <p>● “개가 우리를 반려자로 삼았다”¹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과 거의 99퍼센트 가까이 유전자를 공유하는 침팬지가 인간과 가장 유사하지만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은 개가 단연 월등하기 때문에 영장류를 연구했던 많은 학자가 개를 연구함¹⁹⁾ • 오랜 세월 인간 곁에서 함께 살며 우리 마음을 읽는 능력이 발달했기 때문²⁰⁾ • 개와 인간은 서로 각별하게 공감하고 있으며, 그 공감 능력이 개라는 종을 1만 년 이상 번성하게 함
<p>화자는 ‘강아지’일 것</p> <p>- 지구상에서 인간이 독존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워줄 존재</p> <p>- 일상 속 생태적 감수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역할 가능성</p>	<p>● 의인화 하지만 의인화하지 않는다.</p> <p>“의인화는 대개 인간의 심리적 투사와 수사적 전략으로서 인간중심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박조열 희곡은 자연의 모습을 인간 주체의 의도와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존재로 의인화 했다. 이러한 생태적 의인화는 어린 시절 소와 감응했던 작가의 체험과 생활 사유, 즉 생태적 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생태적 감수성은 체험과 문화라는 생활 사유로 획득된 것으로 인간중심주의와 자연과의 단절이라는 근대의 부정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 자생성과 선구성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²¹⁾</p>

요소	인사이트
	<p>● 동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감정이입과 공감하기</p> <p>“동물은 인간이 하는 것처럼 언어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주장하거나 이기적으로 추구하지 못한 탓에 고통받아왔다. 그 고통의 근원은 다름 아닌 인간이라는 점이 암시되어 있다. 그런 인간이 동물을 이해하기 위한 길은 인간의 ‘말’을 통한 지배와 우위가 아닌 감정이입과 공감을 통해서이다.”²²⁾</p>
	<p>● 같은 생명체로서 존중하기 위해</p> <p>“인간의 일방적인 심리적 투사나 그로 인한 동물 의인화는 다르다. 동물의 본성과 생태를 인간과 동등한 차원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동물을 같은 생명체로서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²³⁾</p>
	<p>● 동물도 서로 화합하고 소통한다.</p> <p>박조열의 희곡 “「오장군의 발톱」에서 표상된 인간의 모습은 다른 생물종보다 우월하거나 지배하는 인간과는 차이가 있다.” “오히려 인간과 동물은 본질적인 생명의 차원에서 동등하며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관계를 맺고 있으며,²⁴⁾ 하나가 아프거나 다치면 다른 하나가 슬퍼하는 관계, 감정 교감과 유대라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공존하는 자연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생태주의²⁵⁾와 맞닿아 있다.”²⁶⁾</p>

요소	인사이트
믹스견일 것	<p>● 오직 하나 뿐인 존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유기되는 반려동물²⁷⁾ 문제의 가장 강력한 원인은 ‘순종(품종)견’, ‘혼종(믹스)견’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 때문이라고 판단 • 2010년~2017년 7월까지 유기된 개 총 58만 6175마리 분석 결과 가장 많이 버려지는 품종은 믹스견(42.2%)로 가장 많음²⁸⁾ • 품종견이나 믹스견이나 나누는 개를 생명으로 보는 시각보다 상품으로 보는 인식이 저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사람에 비유하자면 인종차별을 하는 것과 같음) • 어떤 혈통을 가졌든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생명이고, 소위 ‘믹스견’도 편견 없이 반려견으로 인정 받는 세상이 와야 반려동물과 같은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 되리라 주장함 • 믹스견은 세상에 오직 하나 뿐인 개
	<p>● 낳아준 엄마보다 함께 살고 있는 사람 가족</p> <p>백희나 작가의 2019년 작품 ‘나는 개다’²⁹⁾에서 할머니와 산책을 나온 주인공 개 ‘구슬’이는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낳아준 엄마를 보게 된다. 하지만 구슬이는 엄마가 아닌 같이 사는 남자 아이 ‘동동’이에게 반갑게 달려가는 장면이 나온다. 같이 산책하다가 넘어져서 우는 동동이를 보면서 “하는 수 없다.”내가 지켜주는 수밖에.“라고 한다. 이 장면들에서 개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이고 무리이고 동반자라고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요소	인사이트
----	------

강아지의 후각 활용한 관점일 것

- **개는 세상을 코로 본다.**
 - 냄새는 개에게 전부이며, 개의 후각은 냄새를 찾아내는 데 독보적임
 - 개를 ‘코의 동물’, ‘몸이 부착된 코’라고 불림³⁰⁾
 - 연구자는 개를 ‘후각 민감 포유동물로 분류³¹⁾
 - 개는 냄새를 세세하게 구별하며 폭탄이나 마약, 금지 식품 탐지하며 특정 종류의 식품만을 찾아내기도 하며, 의사의 질병 진단을 돕기도 하며 그리고 범죄 현장이나 실종자 수색 등 다양한 상황에서 냄새의 흔적을 찾아내거나 추적하는데, 냄새가 날아오는 방향, 냄새가 희석되는 정도까지 탐지 가능³²⁾
 - 희귀종 탐색,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관심 대상 동물 개체 추적 가능함. 이런 역할을 하는 개중 다수는 유기견 보호소 출신이며, 자연보호 활동가와 야생동물 보호요원을 도우며 흥미롭고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함³³⁾

주인공 강아지와 대조된 상황인 떠돌이개 (상암이 사건 모티브) 포함할 것

● **떠돌이 개 ‘상암이’³⁴⁾**



2018년 5월부터 월드컵 공원 일대에 한쪽 귀가 접힌(귀가 다 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성견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 중형견 체급을 가진 갈색털의 믹스견이 배회하고 다녔다. 사람

요소	인사이트
	<p>을 피해 다녔지만 반려견 친구와 잘 어울려 놀았던 그 믹스견은 보호자가 없어 반려견 놀이터에 들어갈 수 없어서 다른 개 친구가 노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오른쪽 사진) 순한 성격 때문에 반려견과 산책을 나온 반려인과 놀이터 관계자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상암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고 밥을 챙겨주는 시민들도 생겼다. 10여 명의 시민들이 상암이를 구조하고 입양 계획도 세웠으며, 입양 희망자도 있었다고 한다.</p> <p>떠돌이 개에 대한 민원으로 9월 28일 마취총으로 포획작업이 진행되었고 상암이는 어깨 부위에 마취총을 맞고 쇼크사했다. 떠돌이개 상암이의 죽음은 우리나라의 유기동물을 비롯한 동물에 대한 인식과 정책과 체계에 대해 화두를 던져주었다.</p>
<p>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김</p>	<p>● 안정감을 주는 일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코스를 산책하고, 매일 같이 보호자에게 응석을 부리는 일상에 질리지 않고 변화가 없는 매일이 개에게 안도감을 줌³⁵⁾ • 반려견은 계절의 변화나 주인의 작은 변화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며 오직 바라는 것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환경과 안정적인 애정³⁶⁾

요소	인사이트
	<p>● 규칙적인 일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견을 키우면서 매일 산책을 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람도 많음³⁷⁾ • 현대의 개는 스스로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반려견은 보호자에게 생명을 맡기고 있으며 ‘한 생명을 맡는다’는 자각은 우리에게 사는 목적과 보람을 일깨워 줌³⁸⁾ <p>“반려견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 반려견과 생활하면서 만들어진 규칙적인 생활, 그 결과 바라든 바라지 않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³⁹⁾</p> <p>“도쿄로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책임 있는 일을 맡고, 아내와 두 아이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때 토포와 돌이서 산책한 경험 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⁴⁰⁾</p> <p>“나와 사회를 억지로 연결시켜 준, 다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 준 그때의 토포를 떠올리면서 좀 더 열심히 하자고 불끈 힘을 내 봅니다.”⁴¹⁾</p>
<p>내가 매일 지나다니는 곳이 다양한 생명으로 가득찬 아름다운 곳이라고 깨닫기</p>	<p>“반려견이 없었더라면 알지 못했을 것이 한가득이다. 길가에 핀 꽃과 흙냄새. 목적도 없이 그저 걷기만 해도 좋아지는 기분. 스쳐지나가는 사람들의 미소. 사소하지만 사는 보람 같은 것. 그리고 이 별것도 아닌 하루가 사실은 둘도 없는 행복한 하루라는 점도.”⁴²⁾</p>

요소	인사이트
	<p>“숲, 생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숲 해설, 숲 체험, 숲 치유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생명을 만나고 생태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들은 숲으로 떠난다. 하지만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숲 체험을 마치고 도시로 돌아오면 모두 잊고 살아간다. 일상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이벤트 하듯이 한 달에 한 번 훌쩍 떠나 그날만 다른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다행히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우리 동네에는 1제곱미터의 좁은 땅에도 많은 생명이 살아가고 있다.”⁴³⁾</p> <p>“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조차 차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가 많다. 하지만 출퇴근길에 잠시만 멈추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에 잠시만 멈추면, 장 보러 가는 길에 잠시만 멈추면,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는 - 종략 -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그들이, 그냥 하나의 풍경이었던 그들이 같은 마을, 같은 도시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더 깊이 알고, 느끼게 됐다.”⁴⁴⁾</p>

⁷⁾ 각주문장 및 각주 이하 [유승목의 개인주의]너와 나의 연결고리...‘인권은 ‘동물권’과 피를 나눴다 (머니투데이, 2018. 8. 30. 기사)

⁸⁾ 제16회 서울환경영화제(2019.5.23.~29) 상영작

⁹⁾ 이은하, 『박조열 희곡의 ‘동물과 생태적 감수성』, 『현대문학이론연구』 55권 55호, 2013, 218쪽.

¹⁰⁾ 박정희, 『메아리』잡식 인간이 고민하는 동물의 권리(새전북신문, 2015. 5. 3. 칼럼)

¹¹⁾ 상계서

¹²⁾ 상계서

¹³⁾ 상계서

¹⁴⁾ 마크 베코프, 『개와 사람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한 뼨 더 깊은 지식』(원제: Canine Confidential), 동녘사이언스, 2019, 저자소개 부분(책날개)

- 15) 상계서
- 16) 상계서
- 17) 상계서, 책띠 문구 인용
- 18) 상계서, 8쪽 인용
- 19) 상계서, 8쪽
- 20) 상계서, 8쪽
- 21) 이은하, 『박조열 희곡의 '동물'과 생태적 감수성』 『현대문학이론연구』 55권 55호, 2013, 209쪽 인용.
- 22) 상계서, 220쪽 인용.
- 23) 상계서, 223쪽 인용.
- 24) 상계서, 225쪽 인용.
- 25) 생태주의는 현재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자면 인간을 위한 관리 차원에서 환경주의와 달리, 인간 사회와 자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과 자연에 대한 탈도구적 가치, 생태적 한계와 대안적 프로그램의 실천이라는 맥락에서 정의될 수 있다.(한면의, 『한국 생태주의의 흐름과 현황』 『문화과학』 56호, 문화과학사, 2008년 겨울, 149-152쪽 참조), 상계서 225쪽 재인용
- 26) 상계서, 225쪽 인용.
- 27) 유기동물 보호소의 동물들은 반려동물이었으므로 유기된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 28) [마부작침] 유기동물을 부탁해 ② 가장 많이 버려진 반려동물 종은?(SBS뉴스, 2017.10.2. 기사)
- 29) 백희나, 『나는 개다』, 책읽는곰, 2019
- 30) 마크 베코프, 『개와 사람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한 뼨 더 깊은 지식』(원제: Canine Confidential), 동녘사이언스, 2019, 69쪽
- 31) 상계서, 69쪽.
- 32) 상계서, 74쪽.
- 33) 상계서, 75쪽.
- 34) 고은경, 떠돌이 개 '상암이'의 안타까운 죽음(한국일보, 2018. 10. 8.) 기사에 수록된 '상암이' 사진 (<상암이지킴이들>제공)
- 35) 미우라 겐타, 『그 개가 전하고 싶던 말』, 라이팅하우스, 2018, 28쪽.
- 36) 상계서, 29쪽.
- 37) 상계서, 38쪽.
- 38) 상계서, 39쪽.
- 39) 상계서, 90쪽 인용.
- 40) 상계서, 98쪽 인용.
- 41) 상계서, 98쪽 인용.
- 42) 상계서, 9쪽 인용.
- 43) 최성용, 『시티 그리너리』, 동아아시아, 2017, 7쪽 인용. - 이 연구 핵심 주제인 '일상적 생태적 감수성'으로 설정하게 된 개인적 문제의식을 뒷받침해주는 책을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어 인용하게 되었다.
- 44) 상계서, 9쪽 인용. - 상동

다음 장에 나오는 파일럿 웹툰 두 편은 대표 연구자가 전체 기획과 콘티와 글을 쓰고 일러스트는 공동 연구자가 진행하였다. 광고계 20년 이상 경력의 그린 디자이너와 환경교육 전문가 2인의 감수를 통해 일러스트와 글과 웹툰이 전하고자 ‘일상 속 생태적 감수성’과 ‘일상 속 동물권 이야기’에 대한 메시지를 다듬고 검토를 받은 후 공개하였다.

1) 일상 속 생태적 감수성편(1편) 해설



피곤하고, 바쁘고 지친 일상의 조각 나열

무미건조한 일상의 표현으로 채색하지 않고 칙칙한 회색 톤으로 표현했다.

이어질 전개와 대조되는 상황을 의도하며 제시하였다.

일상 속 신신한 감.동.1

하루의 견생 첫 산책!
보자보자 가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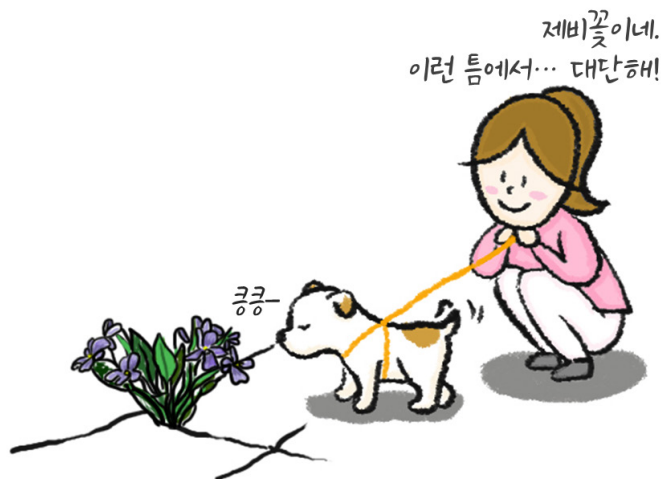


글.기획 @momo.mom.ma
일러스트 Ruth
지원 서울시 NPO 지원센터
공익활동, 자.보조 통합

앞의 컷과 대조되는 상황이다.

순종 강아지가 아닌 '믹스'(이른바 발바리 또는 똥개, 잡종이라고 불리는) 강아지로 설정했다. 강아지 이름은 '하루' - 강아지 보호자가 '하루'와 반려하기 전 '지긋지긋한 하루'에서 '하루'와 반려하고 난 후 '새로운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미한다.

보호자는 '하루언니' - 30대 초반 직장 여성, 부모님과 동거 중 어린이 시절에는 부모님과 산을 다니며 자연에 대한 관심과 감수성이 풍부했으나 직장 생활에 찌들어 무미건조한 일상을 보냈다.



내가 이렇게 제비꽃을 오랫동안 바라본 적이 있었는가...?
 자세히 보니 정말 예쁜 꽃이네.
 그 동안 몰라봐서 미안! 내년에도 하루와 올게!

하루의 첫 산책 시기는 4월이다.

‘제비꽃’이라는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지만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일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봄에 흔히 피는 야생화이다.

위의 컷에서는 보도블록 틈에서 개화한 제비꽃이다.

그 제비꽃을 발견하고 유심히 코로 관찰하는 하루의 모습이다.

어릴 때부터 보았지만 바쁜 일상을 보내며 잊고 살았던 제비꽃을 하루 덕분에 인식하고 반가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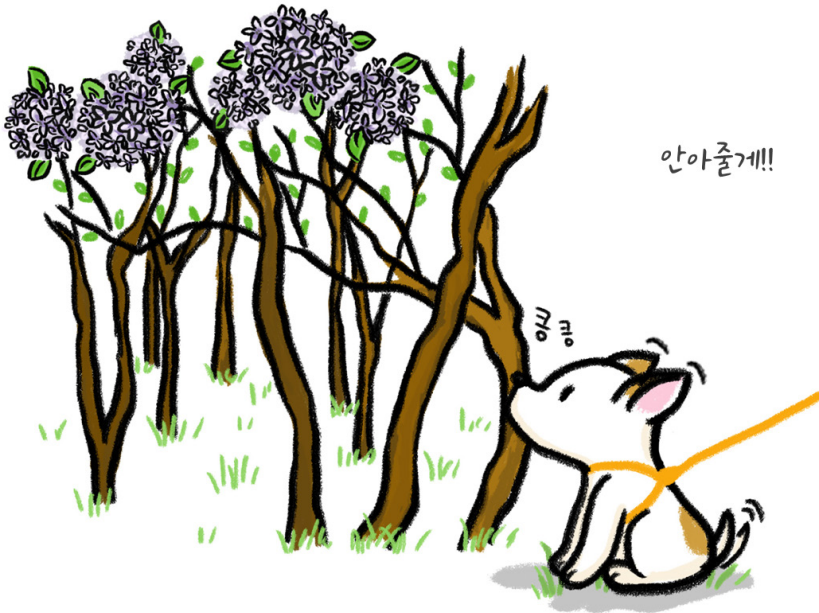
애기똥풀!!



하루가 아니었으면 올해도 무심하게 지나쳤을 봄날.
하루의 첫봄이자 하루와 함께하는 첫 봄이 소중해졌다.
다가올 모든 계절이 오늘처럼 소중하길.

4월부터 무리지어 피는 '애기똥풀'.

개는 색맹이라 인간처럼 다양한 색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파란색과 노란색을 잘 인식한다. '하루'의 눈높이에 맞게 낮게 무리지어 피면서 꽃이 노란색인 '애기똥풀'을 선택하였다.



봄날이 갈수록 하루는 하루가 다르게 크고 있다.
귀도 쫓긋 선 만큼 호기심도 커지고 있다.

수수꽃다리는 4~5월에 만개하지만 앞의 컷에서부터 시간이 지난 설정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귀가 덮여 있던 하루의 귀가 쫓긋 섰다.

하루의 키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후각으로 수수꽃다리의 향기를 감지하고 탐색하고 관찰하는 하루

수수꽃다리에 호기심을 갖는 하루를 위해 하루언니가 안아 올려주려고 한다.

수수꽃다리는 향기가 달콤한 꽃이다.



꽃 향기 아는
하루가 진정한 꽃개!

콩
콩

미세먼지, 태풍, 무더위, 추위...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피어난 수수꽃다리,
하루가 나보다 먼저 알아보았다.



사람들은 예쁜 꽃과 향기만 본다. 하지만 모든 식물은 꽃을 피우기 위해 미세먼지, 태풍, 무더위, 추위, 본문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밤에도 꺼지지 않는 가로등과 같은 인공불빛과 나무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이겨낸다. 그 다음 열매를 맺는다.(인간과 비인간 동물도 그렇다) 개의 후각은 무척 예민해서 달콤한 향기 뿐 아니라 미세먼지 냄새, 비 냄새, 새똥 냄새 같은 수수꽃다리를 스쳐간 냄새까지도 알아챌 수 있다.

봄에는 벚꽃이 전부인 줄 알았지~
하루 덕분에 진짜 봄을 느꼈어.
하루야 고마워.

좁쌀이랑 팝콘을 닮은 꽃?
...
조팝나무!!



앞 컷과 같은 시기이다. 봄에는 벚꽃만큼 아름다운 꽃이 많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그 중에 하나가 '조팝나무'이다. 튀긴 좁쌀이 붙인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위에 것처럼 꽃이 뽁뽁하게 피어 있어서 마치 구름 같다.

아악~
하루야! 천천히 가져!



강아지가 강아지풀을?? ㅎㅎ



초록이 짙어진 만큼 하루도 더 활기차졌어.
나의 하루도...
하루를 보며 나도 더... 어? 비가 오네?

시간이 흘러 6월이 되었다. 6월이면 녹음이 짙어지기 시작한다. 그만큼 냄새가 짙어져서 처음 여름을 맞이하는 하루에게는 호기심 천국이다. 신나게 냄새 맡고 풀밭을 뛰어다니는 하루를 쫓아다니며 하루 언니도 새삼 계절이 변했음을 느낀다.



나무 아래에서 비 오는 풍경을 보는 것도 참 좋네. 여전에는 미처 몰랐어...
하루와 함께하니 비 오는 날이 오늘부터 좋아질 거 같아.

그런데... 저 '아이'는?

하루를 만나기 전에는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서둘러서 이동하기 바빴지만, 저 장면에서는 느티나무 아래서 비를 그런대로 피하며 여유롭게 비 오는 풍경을 감상한다.

그러다가, 몸을 떨며 웅크려 있는 소문으로만 듣던 하루보다 몸집이 큰 떠돌이 강아지를 보게 된다. 한 남자가 그 강아지에게 다가가 간식을 챙겨주고 살뜰히 살펴 준다.

비오는 흐린 날에 생명을 강조하기 위해 하루와 하루 언니, 떠돌이 강아지, 한 남자, 나무 위의 새, 느티나무 수관에만 채색을 하였다.



비가 오고 나니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하루야, 여름에도 이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려줄래?

비가 오고 나서 녹음이 더 짙어진 맑은 날, 비를 피하던 나무를 다시 찾아서 비가 와서 앉지 못했던 벤치에 앉아서 여름 날 풍경과 나티나무 우거진 녹음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하루의 시선을 따라서 바라본다.

하루가 알려줄 앞으로 다가 올 본격적인 여름과 앞으로의 계절을 기대하며

일상 속 신신한 감.동.2



글.기획 @momo.mom.ma
일러스트 Ruth
지원 서울시 NPO 지원센터
공익활동, 사회적기업

1편이 하루언니가 화자였다면 2편은 하루가 화자다.
여름이 지나 단풍이 물들어 떨어지는 가을이 되었다.
하루는 개춘기가 시작되었다.



산책길에서 자주 마주치던 길고양이가 며칠째 보이지 않자. 걱정하는 하루와 하루 언니. 하루 언니는 뉴스에서 나오는 길고양이가 학대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건을 떠올리며 걱정한다.(컷에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우연히 접어든 산책길에서 처음으로 수족관 가게를 본 하루. 호기심에 수족관 가게에 다가가 간다. 대만의 수족관 거리의 한 가게가 이 컷이 모델이 되었다. 알록달록 빛나는 조명과 끊임없이 움직이는 작은 존재가 하루의 호기심을 끌었다.



하루는 수족관 속의 열대어를 바라보며, 그들의 집과 움직이는 공간이 좁다고 생각한다. 수족관에서 작은 열대어들이 좁은 어항에 갇혀 살며 상품으로 팔린다. 상품가치가 높은 열대어는 다른 개체들과 접촉을 통해 생길 수 있는 생채기를 피하기 위해 작은 컵에 격리되어 판매된다고 한다.



며칠 후 산책길에 자주 만나던 길고양이가 돌아왔다. 알고 보니 길고양이는 동네주민들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는 길고양이었다. 길고양이들이 학대당하고 죽는 사건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길고양이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이 컷은 기획자 본인의 실제 경험담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앞으로도 자유로운 네 삶이 행복하길-”



“너나 잘 해- ㄱ”



어머, 지난번 비 오는 날에 이 ‘아이’한테
간식주신 분 맞으시죠?
이 ‘아이’ 입양하셨나봐요-

반려자와 살고 있는 반려동물 하루와 길에서 생활하는 동물인 길고양이가 교감하는 것이다. 반려동물이든 아니든 떠나서 모든 존재는 각자의 삶의 방식을 존중 받아야 하고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것이 동물권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하루언니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다. 1편에서 9번째 컷에 등장한 ‘아이’가 다시 등장한다.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도 생기고 ‘한강’이라는
멋진 이름도 얻었지-”



“건강해 보인다. 귀도 다 퍼졌네?
비 오는 여름 날, 그 때
넌 외로워 보였는데.”

비오는 날 외로움과 배고픔에 떨던 아이는 ‘한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반려견이 되어서 하루와 다시 만났다. 서로 알아보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한강이와 하루. 한강이는 1편에서 버림받아 떠돌아 다니는 귀가 다 안 퍼진 강아지였다. 한강이와 하루는 반려견과 떠돌이 강아지로 만나서 2편에서는 한강이도 하루와 같은 반려견이 되어 만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했다. 한강이의 모델은 작년에 많은 사람들의 공분과 기쁨을 아프게 했던 ‘상암이 사건’의 ‘상암이’이다. 떠돌이 개 ‘상암이’는 포획 중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입양 희망자가 있었던 ‘상암이’이었다. 이 기획의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이 기획을 통해 ‘상암이’에게 해피엔딩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



우리 하루 기특하네 친구들이랑도 잘 놀고
언제 이렇게 컸지?
그 땐 정말 여리고 작았는데...

길고양이 친구에게 물었던 것처럼 한강이에게 ‘지금 행복한지’ 묻는 하루이다. 개는 인간과 반려해야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번 연구 스티디를 통해 알게 되었다. 하루언니가 하루를 기특해하며 과거를 회상한다.

2019년 어느 봄날...



오늘부터 우리는 가족이야.

하루를 입양하던 날을 회상하는 하루언니. 한강이처럼 하루도 유기견이었음을, 입양하는 순간 유기견이 아니라 반려견이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 반려동물을 펫샵에서 '사지 말고'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하세요'라고 알리고 싶었다.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라는 메시지도 전하고자 했다.

모모랑 라희가 행복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모든 동물들이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에서 시작한
 ‘일상 속 소소한 생태감수성과 동물권’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말 못하는 존재에게 목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체 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 매트 마지니

그림에 나온 동물들은 우리가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가진 고양이들과 사랑받으며 살고 있는 반려견들을 통해 일상에서의 동물권을 - 모든 동물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바람을 표현하고자 했다. 스테디를 하며 읽은 책에서 2편의 기획의 토대가 된 구절도 함께 실었다. 향후 일상에서 접하지만 지나치게 되는 실내동물원, 공장식 축산, 실험동물 등 다양한 동물권 이슈를 다루고자 한다.

3장

독자의 이야기

두 편의 파일럿 웹툰을 본 연구 대표자의 SNS(인스타그램)과 본 연구의 지원기관인 서울시NPO지원센터 SNS(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두 편의 웹툰의 조회 수는 대표자의 인스타그램에서만 총 1,084회로 집계되었다. 집계하지 않은 서울시NPO지원센터에 페이스북 조회 수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독자들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 특성상 웹툰에서 설문으로 연계되는 과정이 이어지기가 어려워 70명이 응답하였다.⁴⁵⁾

본 연구에서는 ‘일상 속 소소한 감동’ 파일럿 웹툰이 생태적 감수성과 동물권 인식 향상에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웹툰을 읽은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설문 조사

SNS에 게시된 2편의 웹툰을 읽기를 완료한 독자를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환경교육에 의한 환경의식·태도변화 조사 보고서(2014)에서 사용한 ‘환경의식과 태도변화 조사 설문지’의 언어적 관여 영역, 행동적 관여 영역, 정서적 관여 영역에서 환경일반, 동물 주제 5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한 폐쇄형 12문항(1~12번)과 개방형 3문항(13~15번) 총 15문항을 환경교육 전문가 2인이 검토하고 문항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구성하고 응답 결과 해석 방식을 자문 받았다. ⁴⁶⁾ 응답자가 파일럿 웹툰을 읽기 전과 후를 스스로 비교해서 응답하는 폐쇄형 설문 구성은 <표 1>과 같다.

⁴⁵⁾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과 달리 본문에 링크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대표 연구자의 프로필에 설문 링크를 게시하였다. 웹툰을 보고 바로 설문을 바로 이어지는 별도로 대표 연구자 계정 프로필에 들어가서 설문 링크를 클릭해야 하는 구조라 조회수 대비 응답자 수가 적은 것으로 추측한다.

⁴⁶⁾ 원래 계획은 온라인 양식에 사전 설문-파일럿 웹툰-사후 설문지의 순서로 배치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그런 경우 ① 연구자의 의도가 명백하게 보여 응답자들이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설문에 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 사후 설문의 의미가 없고 ② 2편의 파일럿 웹툰으로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렵다는 피드백을 받아 위와 같이 설문 방식을 변경하였다.

영역	주제	문항 번호
언어적 관여	동물	2, 8
	환경일반	1, 3
행동적 관여	동물	4, 5, 7
	환경일반	6
정서적 관여	동물	10, 12
	환경일반	9, 11

<표 1> 폐쇄형 설문 구성

본 설문을 검토하고 선정된 환경교육 전문가의 자문으로 개방형 질문은 웹툰을 읽은 후 ‘일상’에서 만나는 동물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대한 변화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아래와 같다.

13. 앞으로 길거리에서 산책하는 강아지, 유기견, 유기묘를 만나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14. 동물을 대할 때 태도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달라질 것 같나요?
15. 동물과 인간이 함께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변화나 노력이 필요할까요?

2) 설문 조사 분석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환경교육/동물권/동물보호 교육 경험

웹툰을 읽은 독자 중 7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2>와 같다.

문항		응답자수(명)	비율(%)
성별	남	23	32.9
	여	47	67.1
	소계	70	100

문항		응답자수(명)	비율(%)
연령대	10대	0	0%
	20대	19	27.1
	30대	40	57.1
	40대	10	14.3
	50대	1	1.4
	60대 이상	0	0
	소계	70	100
거주지역	강원	2	2.9
	경기	25	35.7
	경남	1	1.4
	부산	5	7.1
	서울	30	42.9
	울산	1	1.4
	인천	2	2.9
	전북	1	1.4
	충남	1	1.4
	충북	1	1.4
	시드니	1	1.4
	소계	70	100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두 배 이상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30대가 57.1%, 20대가 27.1%, 40대가 14.3%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 독자층이 20대와 30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SNS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⁴⁵⁾와 경향이 유사하다. 거주지역으로는 서울과 경기 거주 응답자가 대부분(88.6%)이며, 소수이지만 응답자가 전국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⁴⁵⁾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추이 및 이용행태 분석, KISDI STAT Report(온라인 정기 간행물), 2019년 5월 30일에 배포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2018년 SNS 연령대별 이용률 추이는 20대, 30대, 40대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니지만 응답자의 환경과 동물에 대한 인식의 바탕이 되는 질문을 포함하여 환경교육과 동물권/동물보호 교육을 받아본 경험의 횟수와 활동가인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문항		응답자수(명)	비율(%)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	없다	35	50
	1~2회	13	18.6
	3~5회	5	7.1
	6회 이상	10	14.3
	관련 단체 활동가	7	10
	소계	70	100
동물권/동물보호 교육을 받은 경험	없다	55	78.6
	1~2회	10	14.3
	3~5회	3	4.3
	6회 이상	2	2.9
	관련 단체 활동가	0	0
	소계	7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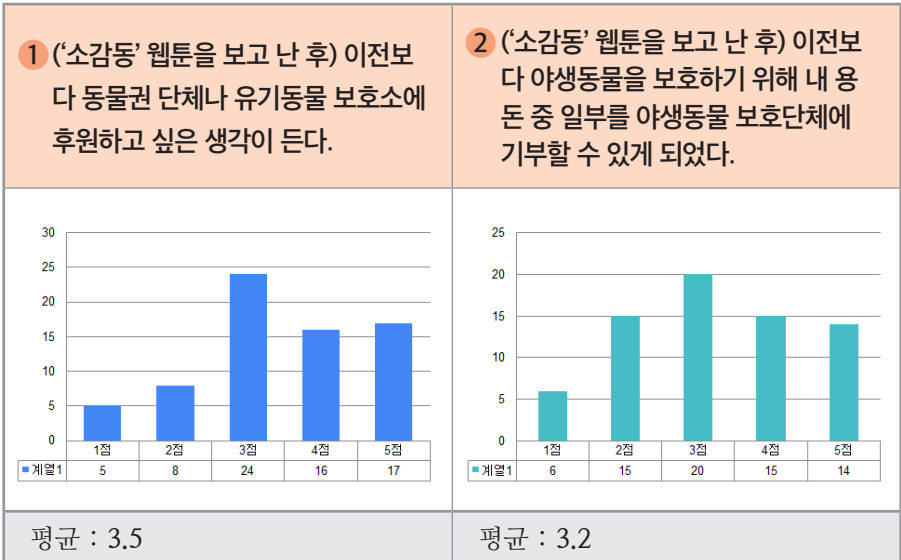
<표 3> 응답자의 환경교육/동물권·동물보호 교육 경험 결과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 환경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집단이 35%로 가장 많았다. 1~2회가 18.6%, 6회 이상이 14.3%, 환경교육 관련 단체 활동가 10%로 뒤를 이었다. ‘동물권/동물보호 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한 응답은 받아본 적이 없다가 78.6%로 가장 많았다. 1~2회가 14.3% 그 다음을 이었다. 이 비율은 환경교육을 6회 이상 받은 비율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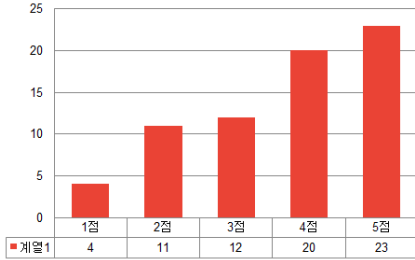
동물권/동물보호 교육보다 환경교육을 받아 본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환경교육은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 저변이 더 넓고 그에 따라 환경교육을 경험할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2) 문항별

환경교육 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따라 3점(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의 응답 비중이 높은 경우 파일럿 웹툰(웹툰)이 생태적 감수성과 동물권 인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프 밑의 표는 각 점수별 응답 빈도를 나타낸다. 전체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으며 특히 9번과 11번 문항의 환경문제의 피해자를 인간에서 동물의 범위까지 확장하는 인식에 대한 답변과 10번 문항의 동물실험에 대한 문제의식이 평균 3.9로 가장 높은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번 문항의 야생동물 보호단체 기부에 대한 답변이 3.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파일럿 웹툰에서는 야생동물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인식도 낮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개발 예정인 웹툰에서는 야생동물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자 한다. 응답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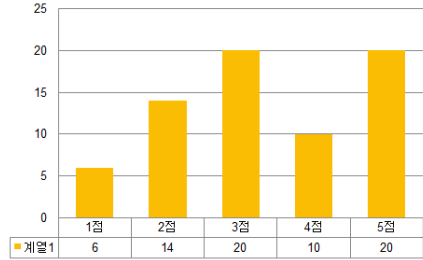


3 ('소감동' 웹툰을 보고 난 후) 이전보다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친구나 가족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해 알릴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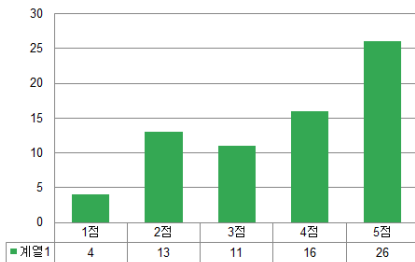
평균 : 3.7

4 ('소감동' 웹툰을 보고 난 후) 이전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동물과 관련한 문제에 관한 이야기나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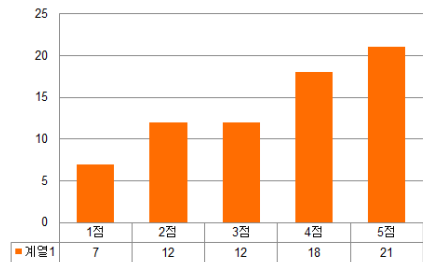
평균 : 3.3

5 ('소감동' 웹툰을 보고 난 후) 이전보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의 털로 만든 옷을 사지 않도록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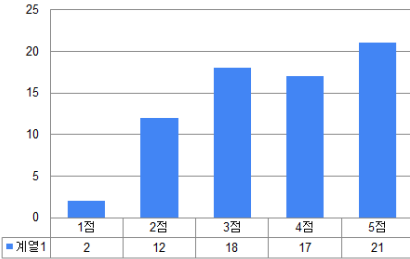
평균 : 3.7

6 ('소감동' 웹툰을 보고 난 후) 이전보다 동물과 환경문제에 관한 책이나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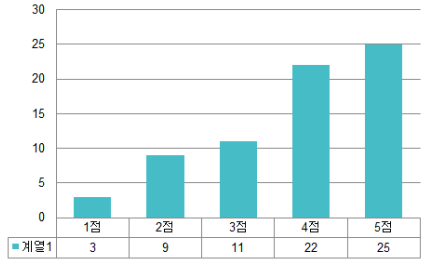
평균 : 3.5

7 ('소감동' 웹툰을 보고 난 후) 이전보다 우리집 주위에 새들이 많이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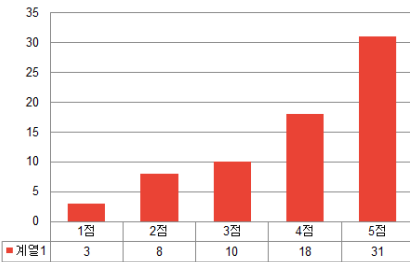
평균 : 3.6

8 ('소감동' 웹툰을 보고 난 후) 이전보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의 뼈나 가죽으로 만든 제품을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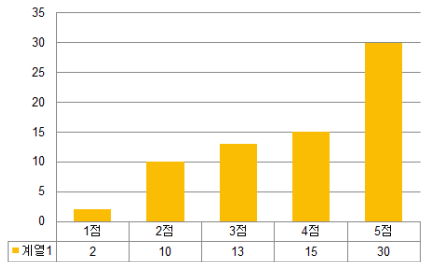
평균 : 3.8

9 ('소감동' 웹툰을 보고 난 후) 이전보다 오염물질로 인해 환경문제가 생겨서 동물들도 피해를 입을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



평균 :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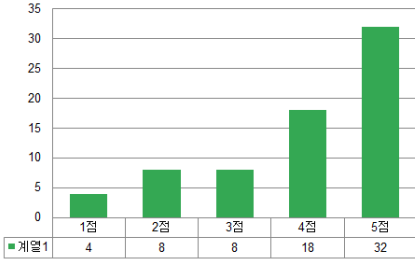
10 ('소감동' 웹툰을 보고 난 후) 이전보다 상품을 만들 때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는 회사를 보면 화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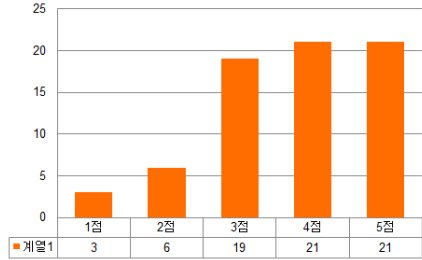
평균 : 3.9

11 ('소감동' 웹툰을 보고 난 후) 이전보다 동물들과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환경오염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하여 걱정한다.

12 ('소감동' 웹툰을 보고 난 후) 이전보다 동물들이 살고 있는 곳에 건물이 세워진 것을 보면 기분이 나쁘게 되었다.



평균 : 3.9



평균 : 3.7

<표 4> 폐쇄형 문항별 응답 분포 및 평균

개방형 질문의 경우 ‘소감동 웹툰’을 읽은 후의 변화에 대한 답변 유형을 설정하여 분류하였고 유형에 대한 빈도수를 정리하였다.

13 (‘소감동’ 웹툰을 보고 난 후) 앞으로 길거리에서 산책하는 강아지, 유기견, 유기묘를 만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3명 무응답)		
무관심형 (어떤 생각과 감정도 들지 않는 유형)	4	6%
방관형(인식과 이해를 하지만 본인과 관계를 짓지 않으려는 유형)	4	6%
객관형(방관형 보다 더 인식과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객관적인 관점과 인식으로 동물에 대해 인식하는 유형)	11	16.4%
감정형 (분노, 연민, 안타깝다, 불쌍하다와 같은 감정적인 변화를 느끼는 유형)	31	46.3%
행동형 (연민을 넘어 도움을 주려는 생각과 행동을 품는 유형)	14	20.9%
견고형 (이미 스스로에 대해 생태적감수성이나 동물권 인식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소감동 웹툰을 읽은 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유형)	3	4.5%
합계	67	100%

<표 5> 개방형 13번 문항 유형별 응답 결과

13번 문항에서 ‘소감동 웹툰(웹툰)’을 읽고 나서 길거리에서 산책하는 강아지, 유기견, 유기묘에 대한 인식과 태도변화를 물었다. 유형별 응답 결과는 위의 <표 5>와 같다. 70명 중 67명

이 답변하였고 그 답변을 무관심형, 방관형, 객관형, 감정형, 행동형, 견고형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빈도수를 측정하였다. 본 파일럿 웹툰이 영향을 준 유형으로는 객관형, 감정형, 행동형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감정형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행동형이 20%, 객관형이 16.4%로 뒤를 이었다. 즉, 전체 응답자 중 82.7%가 생태적 감수성과 동물권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 변화의 가능성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4 (‘소감동’ 웹툰을 보고 난 후) 동물을 대할 때 태도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달라질 것 같나요?(3명 무응답)		
무관심, 변화 없음	15	22.4%
보호, 시혜적 인식과 태도	13	19.4%
동물권, 생명존중, 공존, 동등한 존재라는 인식과 태도	39	58.2%
합계	67	100%

〈표 6〉 개방형 14번 문항 유형별 응답 결과

14번 문항은 ‘소감동 웹툰(웹툰)’을 읽고 나서 동물을 대할 때 태도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은지 질문했다. 유형별 응답 결과는 위의 〈표 6〉과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의 맥락과 상통하는 동물권·생명존중·공존·동등한 존재라는 인식과 태도의 변화라는 답변이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무관심하거나 변화가 없다는 답변이 22.4%로 뒤를 이었는데, 웹툰 두 편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생기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그 다음으로는 동물 보호와 동물에 대해 시혜적 인식과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는 답변이 19.4%로 뒤를 이었다.

15 ('소감동' 웹툰을 보고 난 후) 동물과 인간이 함께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변화나 노력이 필요할까요?(2명 무응답)

모름, 무관심	2	22.4%
친환경적 태도 및 환경 보전	10	19.4%
동물권, 생명존중, 공존의 인식과 태도	36	58.2%
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 교육, 콘텐츠 제공	13	19.1%
동물을 위한 대한 법·제도 개선	7	10.3%
합계	67	100%

<표 7> 개방형 15번 문항 유형별 응답 결과

15번 문항은 웹툰을 보고 난 후 동물과 인간이 함께 행복한 환경을 위해 필요한 변화와 노력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응답 결과는 위의 <표 7>과 같다. 가장 많은 응답으로는 동물권, 생명존중, 공존의 인식과 태도가 52.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왔고 그 뒤를 이어 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 교육, 콘텐츠 제공이라는 답변이 19.1%로 뒤를 이었다. 인간이 동물과 공존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계기될 다양한 활동, 교육, 콘텐츠의 수요가 있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 친환경적 태도와 환경 보전이라는 답변이 14.7%로 그 뒤를 이었다. 인간과 비인간 동물은 지구라는 집에서 함께 산다는 생태적 감수성 인식이 드러나는 의견이었다.

(3) 집단별

폐쇄형 12문항을 각각 연령대별(20~40대), 환경교육을 받아본 경험 별로, 동물권/동물보호 교육 받아본 경험별로 평균을 비교해 보았다.

아래 <표 8>를 보면, 20대는 모든 문항에서 종합평균보다 높은 평균인 4.1을 기록했다. 20대 집단 중 환경교육을 받은 응답자가 57.9%를 차지하고 동물권 교육을 받은 응답자가 4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대 집단은 각각 40%와 7.5%로 나타났다. 20대 집단 다수가 환경교육과 동물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경교육과 동물권 교육을 모두 받은 응답자가 42.1%를 차지하며, 30대 집단인 경우 7.5%를 차지한다. 6배 차이가 난다. 환경교육과 동물권 교육 모두 받지 않은 응답자가 20대 집단은 42.1%, 30대 집단은 52.5%를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20대가 환경교육과 동물권 교육에 대한 경험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아서 웹툰의 ‘일상 속 생태적 감수성과 동물권’이라는 메시지를 더 잘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웹툰이라는 매체가 가장 익숙한 연령대이고 왕성한 학습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30대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종합 평균과 유사한 응답결과가 나왔다. 40대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평균이 낮고 20대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생태적 감수성이나 동물권에 충분한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으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웹툰이 익숙한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폐쇄형 전체 문항 종합 평균	20대	30대	40대
3.6	4.1	3.6	3.0

<표 8> 폐쇄형 전체 문항 연령별 평균 비교

환경교육 경험 여부와 동물권 교육 여부를 교차하여 아래 <표 9>에 정리하였다. 환경교육과 동물권 교육을 모두 받지 못한 집단은 50%를 차지하며 평균치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환경교육의 경험이 없는 집단은 모든 문항에서 평균보다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이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할 가능성이 있지만 생태적 감수성은 개인의 성장환경과 경험에 따라 생태적 감수성 정도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 경험 유무로 생태적 감수성을 측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응답자 개인이 갖고 있던 생태적 감수성을 측정하지 못한 것이 이번 설문문의 한계이다.

환경교육을 받아봤지만 동물권 교육을 받지 못한 집단은 24.3%를 차지하며 3.8로 평균보다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환경교육을 받았고 동물권 교육을 받은 집단은 15.7%를 차지하며 3.9로 평균보다 높고, 환경교육을 받았지만 동물권 교육을 받지 못한 집단보다 미세하게 높게 나타났다.

환경교육 활동가이면서 동물권 교육을 받지 못한 집단은 4.3%를 차지하며 평균 3.9를 나타냈다. 이는 평균보다도 높고 환경교육과 동물권 교육 모두 받은 집단과 같은 값이 나왔다. 환경교육 활동가이면서 동물권 교육을 받은 집단은 5.7%를 차지하는 집단은 20대 집단 평균 다음으로 높은 수치인 평균 4.0을 기록했다.

환경교육과 동물권 교육 중 하나라도 받은 경험이 본 웹툰으로 인한 일상 속 생태적 감수성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폐쇄형 전체 문항 종합 평균 3.6	환경교육 경험	무	3.4	35명(50%)
	동물권교육 경험	무		
	환경교육 경험	유	3.8	17명(24.3%)
	동물권교육 경험	무		
	환경교육 경험	유	3.9	11명(15.7%)
	동물권교육 경험	유		
	환경교육 경험	활동가	3.9	3명(4.3%)
	동물권교육 경험	무		
	환경교육 경험	활동가	4.0	4명(5.7%)
	동물권교육 경험	유		

<표 9> 폐쇄형 전체 문항 환경교육/동물권교육 경험별 교차 집단 평균 비교

3) 인터뷰

파일럿 웹툰과 연계한 일상 속 생태적 감수성과 동물권 인식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인터뷰이 세 명을 섭외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각 세 명의 유형은 아래 <표 10>과 같다.

인터뷰이 1 (30대, 여)	본인 스스로 생태적 감수성이 높다고 생각함 현재 반려견 반려 중
인터뷰이 2 (20대, 남)	본인 스스로 생태적 감수성이 높다고 생각함 반려동물 반려 경험 없음
인터뷰이 3 (20대, 남)	본인 스스로 생태감적 감수성이 낮다고 생각함 반려동물 반려 경험 없음

<표 10> 인터뷰이 유형

인터뷰 요약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은 굵은 글씨로 표기하였다.

인터뷰이1 : 본인 스스로 생태적 감수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현재 반려견 반려 중

Q1. 반려견을 볼 때 드는 생각과 느낌은?

반려견 소개 - 중략 - 사랑스럽고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존재,
이미 가족으로서 함께 있는 당연한 관계

Q2. 반려견이 있기 전 비교 전후 나의 생활과 가치관의 변화는 무엇인지?

- 중략 및 요약 -

무엇보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내 자신과 배우자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Q3. 반려하면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우리 부부는 결혼을 하고 3년 동안 아파트에 딸린 공원을 가본 적이 없다. 그냥 집에서만 자고 생활하고 자연을 찾으러 교외로 여행을 다녔을 뿐 집 근처 공원을 가본 적이 없다.

반려견을 데려오면서 우리집 주변에 공원이 앞뒤로 두 개가 있으니 산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루에 두 번씩 산책이 당연해졌다.

- 중략 - 아무래도 주변 산책을 많이 다니다보니 자연적인 색깔의 변화나 하늘의 색깔의 변화에 조금 더 민감해졌다.

꽃의 개화, 나뭇잎 색깔의 변화에 그냥 같이 앉아서 바라보고 이런 게 우리 강아지는 (다리가 안 좋아서) 산책 중간에 쉬어줘야 한다. 쉬면서 그런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

주어진 환경을 더 많이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진한 나무색깔을 좋아하는구나 - 중략 - 나무색깔이 다르다는 것도 계속 보게 되니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다. 아 사람들이 껌을 이렇게 많이 버리는구나! 왜냐하면 반려견이 먹으면 안 되니까 더 신경써서 보게 된다.

Q4. 본인이 생각하는 생태적 감수성이란?

사람과 자연의 자연스러움. 내가 자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

인간은 너무 많이 자연을 밀어내고 사람의 편의성만 생각을 해 그 점이 불편하다.

- 중략 - 자연이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같이 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해야 한다. - 중략 -

우리나라는 자연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한다. 내가 돈이 더 많은 게 중요하지.

Q5. 파일럿 웹툰 두 편을 보고 생태적 감수성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있었는지?

스스로 생태감수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는 없는데 내가 경험했던 것을 정리된 글로 보는 느낌이라 좋았다.

Q6. 생태적 감수성이 향상된 동물권 인식도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을 갖고 파일럿 웹툰을 만들었다. 웹툰을 보고나서 이 가설에 대해 동의하게 되었나?

왜 인간이 뭔가가 다르고 뭔가가 뛰어나고 뭔가가 더 복잡하다고 생각을 할까? 그 동물에 대한 복잡함을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너무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인간 중심적인 생각. - 중략 - 동물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표현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저 사람들은 정말 본인 이외의 생물에 대한 뭔가 이입이나 이해를 하려는 노력을 못하는구나. 그게 되게 안타깝다.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과 콘텐츠가 특히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더 잘났다는 생각 때문에 막 대해도 된다는 오만함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런데 결코 잘나지 않았고 정말 허허벌판 자연에 인간과 동물을 풀어놓으면 인간이 더 빨리 죽을 수 있다. 생존본능이 더 약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특출한 몇 명의 사람들로 이렇게 발전이 돼서 이렇게 같이 어울려져서 누리고 살면 거기에 대한 감상이 있어야 한다. 내가 아파트를 지은 게 아니고 내가 콘크리트를 발견한 게 아니잖아 아마치 이 모든 걸 자기가 해낸 것처럼.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불편하다. ...중략... 기본적으로 자연에 대한 감사함과 그 위대함과 존재의 힘을 모르니까 이렇게 막 행동할 수 있는 것 같다.

Q7. 1편과 2편에서 인상 깊은 장면과 이유는?



비가 오고 나니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하루야, 여름에도 이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려줄래?



우리 하루 기억하세 친구들이랑도 잘 놀고
먼저 사람이 있어
그런 것만 때문이죠...
그런 것만 때문이죠...
그런 것만 때문이죠...

1편 10번째 컷-

나무 밑 벤치에서 같이 앉아 있는 컷 :
여름에 비슷한 장소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바람 공기 냄새 색깔과 함께 그 시간을 말없이 즐길 때 함께하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의미있고 편안해서

2편 8번째 컷-

나의 반려견이 다른 개들에 대한 경계심이 심해서 산책도 못하고 친구도 없는데 하루와 닮은 강아지와 처음 본 날부터 친하게 지내는 모습에 놀라움 기특함 고마움 그리고 우리집과 주변 환경이 편안해 지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던 기억이 떠올라서

Q8. 제안하고 싶은 의견은?

자연의 흐름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의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거기에서 사람의 역할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냥 생태계 속에 있는 많은 생물 중 하나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은 생물을 죽이고 있고 누구보다도 이기적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생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몸이다.

다른 생명체들과 더불어 산다는 개념이 현저히 적은 것 같다. 이러한 개념을 채우기 위한 후속 콘텐츠가 나왔으면 좋겠다.

인터뷰이2 : 본인 스스로 생태적 감수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반려동물 반려 경험 없음

Q1. 웹툰을 보기 전에 생각해왔던 생태적 감수성은?

인간과 자연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마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왔음

Q2. 웹툰을 읽고 나서 생태적 감수성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나?

반려동물과 함께 교감을 하면서 무심코 지나갔던 자연환경들도 소중하게 보이는 것
동물들은 사람과 상호작용 하면서 행복하고 자유로움을 느끼지만 수족관의 물고기
들은 사람들의 관상을 위해서 가둬놓는 것
강아지의 동물권과 물고기의 동물권, 고양이의 동물권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각자 쾌적하고 행복하기 살기 위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Q3. 웹툰에서 느끼거나 알게된 것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공감대를 끌어오기 위해 구성한 것 같다.
화려하지 않는 꽃들이 나오는 것 같다.
비오면 짜증부터 내는데 우산이 없으면- 강아지와 함께하니깐 이마저도 좋은 것 같다.
여름은 덥고 짜증나고 이런데 하루로 하여금 더 아름다운 계절로 바뀌었다.

**Q4. 생태적 감수성이 향상된 동물권 인식도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을 갖고 파일럿
웹툰을 만들었다. 웹툰을 보고나서 이 가설에 대해 동의하게 되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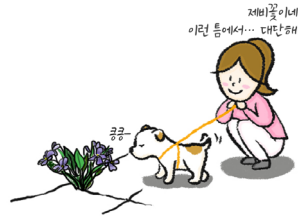
생태감수성이 동물 자연 등을 생각한다는 것이므로 동물권도 생태감수성에서 나온다는
생각한다.

Q5. 이 웹툰이 당신의 생태감수성과 동물권 인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반려동물과 살아보지 않아서 몰랐던 부분을 이 웹툰을 통해 알게됐다. 사소한 자연환경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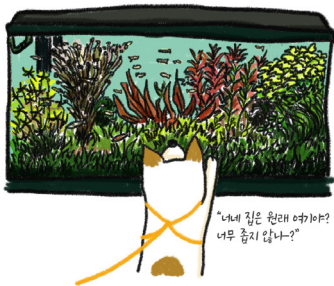
해설이 곁들여진다면 꽃들의 의미나 이야기의 의미에 대해서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Q6. 이 웹툰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내가 이렇게 제비꽃을 오랫동안 바라본 적이 있었던가...?
자세히 보니 정말 예쁜 꽃이네.
그 동안 몰라봐서 미안! 내님에도 하루와 함께!

봄에는 벚꽃 말고도 조팝나무, 제비꽃 등 예쁜 꽃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다는 것



2019년 어느 봄날...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의 동물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하루도 유기견이었던 것

인터뷰이3 : 본인 스스로 생태적 감수성이 낮다고 생각하며 반려동물 반려 경험 없음

Q1. 웹툰을 보기 전에 생각해왔던 생태적 감수성은?

자연이나 사람이 아닌 동물들을 이해하고 하나의 생명체로서 사람한테도 인권이 있는 것처럼 동물에게도 동물의 권리가 있고 자연에게도 자연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

Q2. 웹툰을 읽고 나서 생태적 감수성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나?

강아지가 나한테 주는 선물이 있구나. 강아지와 살면서 상호 작용하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다.

웹툰에서 계속 아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인간의 아이를 부르는 것처럼 확실히 생태적 감수성이 있는 화자니까 동물한테 인격을 부여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읽기 전후로 생태적 감수성이랑 비슷했고 단지 앞에 말했던 내용이 추가되었다.

Q3. 웹툰에서 느끼거나 알게 된 것은?

거창한 생물이 아닌데도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웹툰에 나오는 것처럼 봄에는 사람들이 벚꽃만 보러간다. 남들이 보러가니까 따라간다는 느낌이 있다. 본인이 강아지와 함께 진짜 봄을 느끼는 것 같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첫 번째 계절을 나누는 느낌

Q4. 생태적 감수성이 향상된 동물권 인식도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을 갖고 파일럿 웹툰을 만들었다. 웹툰을 보고나서 이 가설에 대해 동의하게 되었나?

생태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은 인간이 아닌 동물도 존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동의한다.

Q5. 이 웹툰이 당신의 생태감수성과 동물권 인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반려동물을 키운 적은 없지만 키우게 된다면 저의 즐거움 보면서 느끼는 행복 이런 것만 생각했을 것 같다. 그런데 강아지가 느끼는 행복도 있고 버림받는 강아지들도 있고 다 권리가 있는 동물 친구인데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웹툰을 아무생각 없이 바로 봤을 때 생태적 감수성이 늘었다고 보기엔 어려울 거 같다. 생태적 감수성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알아야할 것 같고 이게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런거지 뭐 ~ 그림이 예쁘네~' 하고 넘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해설과 같은 추가 설명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 웹툰이 전하고자 하는 생태감수성의 가치와 동물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

Q6. 이 웹툰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2019년 어느 봄날...



1편은 반려동물 때문에 못 보던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인상깊었고 2편에서는 하루도 유기견 출신인데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놀라웠다.

4) 독자의 이야기 같무리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20대 중심, 30대를 포괄하는 타겟으로 콘텐츠 개발과 캠페인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 활동을 기획하고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두 편의 파일럿 웹툰으로도 생태적 감수성과 동물권 인식 향상이라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설문결과가 사람들의 삶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콘텐츠 및 웹툰 제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그 다음 시리즈를 제작해도 되겠다는 명분과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일상 속 생태감수성과 동물권’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하고 메시지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웹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웹툰이라는 콘텐츠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캠페인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인식 향상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장

결론과 제언

인간들이 비인간 동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위해서 심층생태주의⁴⁸⁾ 교육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⁴⁹⁾ 진정한 다원론이 되기 위해, “자연을 대변하는” 생태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인간만을 위한 다원주의에 빠진 수십억 명의 지구 시민들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⁵⁰⁾ 동물권을 정의한 톰 리건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⁵¹⁾

“사람들은 그들의 습관을 바꾸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바꿔야 한다. 충분한 사람들, 특히 공직에 선출된 사람들은 우리가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갖기 전에 변화에 대해 믿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교육, 홍보, 정치 조직, 활동에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요구하면서 매우 복잡하고, 매우 까다롭고. - 중략 -”

동물의 권리에 대해 공감하고 인정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연구는 시작되었고, 위 인용글에서 이 연구는 교육과 홍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는 2017년에 생명다양성 재단이 주최하는 강연에서 동물보호 인식 확대를 위해 SNS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⁵²⁾ SNS를 활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게시하고 배포하고 피드백을 받을 콘텐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발된 콘텐츠는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온라인 매체로서

⁴⁸⁾ 심층생태주의 : 인간을 환경에 온전히 통합된 일부로 보며 인간과 생물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이론. 1973년에 노르웨이의 철학자 내스(Næss, A.)가 창안한 용어이다. 네이버 국어사전.

⁴⁹⁾ Helen Kopnina, Mickey Gjerris, Are Some Animals More Equal than Others? Animal Rights and Deep Ecology in Environmental Education, Canadia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v20, 2015, p.117.

⁵⁰⁾ 상계서

⁵¹⁾ Tom Regan, A case for animal rights. In M. W. Fox & L. D. Mickley (Eds.), Advances in animal welfare science, Washington, DC: 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1986, pp. 179-189, 상계서 재인용.

⁵²⁾ 동물복지 붓@aniko_welfare, 2017년 8월 11일 트윗.

⁵³⁾ 환경교육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생태적 감수성'의 향상이다.

생태적 감수성을 지향하며 동물권 인식 향상도 도모할 수 있는 환경교육⁵³⁾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환경교육을 경험한 적 있느냐’라는 질문에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소감동 웹툰과 같은 온라인 콘텐츠를 접한 것만으로도 ‘그렇다’고 응답할 수 있을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매체이지만 기존의 환경교육이 지향하는 생태적 감수성의 가치를 충분히 담은 환경교육 매체이자 자원이기 때문이다.

환경윤리학(생태윤리)의 분야에서는 1970년대 이후 내스(Naess, A.)의 심층생태주의 이론이 전개되어 왔으나 반려동물의 동물권까지는 논의가 이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 앞서 이야기 했듯이 환경교육학에서는 비인간동물을 포함한 생태계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교육이 추구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교육 현장에서 생명경시와 생태윤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이에 대한 자성의 움직임으로 ‘서울환경교육 생태윤리 포럼’에서 공론화를 시작하였다.⁵⁴⁾ 환경교육에서도 어디까지나 그 주체는 인간이고, 반려동물을 비롯한 비인간동물은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을 성찰할 수 있는 자리였다. 1장과 2장에서 언급했듯이⁵⁵⁾ 생태주의, 생태윤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상에서부터 생태적 감수성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획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동물의 권리를 포함하는 새로운 환경교육을 위한 작은 시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여러 가지 가능성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시각과 비인간 동물도 인간과 동등한 생명체라는 인식부터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상 속 생태적 감수성’에서부터 ‘동물권’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제작을 하고 배포를 하고 독자들의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예상보다 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인터뷰에서 웹툰에 대한 해설을 듣고 자세히 읽은 인터뷰이를 통해서 ‘동물에게도 인격이 있구나.’ 라는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느낄 수 있었

54) ‘서울환경교육 생태윤리포럼’ 홍보 웹자보 문구 인용. 2019년 10월 17일 ‘제4회 서울환경교육 한마당’ (주최-서울환경교육네트워크, 녹색서울시민위원회/후원-숲과나눔재단)에서 개최되었다.

55) 1장 - 왜 일상 속 생태적 감수성인가? / 2장 - 내가 매일 지나다니는 곳이 다양한 생명으로 가득찬 아름다운 곳이라고 깨닫기 부분

다는 피드백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고무적이었다. 하지만 그 저변에는 그 동안 이루어졌던 다양한 환경교육과 동물권 및 동물보호 교육과 캠페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본다.

일상 속 생태적 감수성과 동물권으로 이어지는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고 온라인에 배포하고 온라인 캠페인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아니라 그 콘텐츠를 기반으로 오프라인에서도 교육 활동,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파생 콘텐츠를 기획하고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병행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시범적인 활동으로 이 연구의 대표자가 담당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의선 숲길에서 진행되는 생명다양성 캠페인의 부대 프로그램으로 ‘생태적 감수성 웹툰 전시’라는 제목으로 ‘소감동 웹툰 1편’ 인쇄하여 전시하고 있다. 숲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산책하다가 이동하다가 슬쩍 슬쩍 웹툰을 보면서 지나가거나, 잠시 멈춰서 읽고 가는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충분히 눈길을 끌 수 있는 일러스트와 메시지라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리고 2019년 8월에 시행된 환경부가 주관하는 사회 환경교육 3급 양성과정의 공통과목인 ‘환경교육 자원’ 강의에서 소감동 웹툰이 새로운 환경교육 및 매체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⁵⁶⁾

다음 기회에는 이 콘텐츠를 활용한 ‘일상 속 생태적 감수성’을 키워드로 하는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 기획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 그리고 파일럿 콘텐츠를 넘어서 꾸준한 ‘일상 속 생태적 감수성’ 시리즈도 제작하여 꾸준하게 온라인에서 배포하고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찾게 될 것이고 이 웹툰을 닮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가랑비에 옷 젖듯 자연스럽게 생태적 감수성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⁵⁶⁾ 이 과목을 담당한 강의자의 추천으로 소개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 이재영(2013). 『한국 환경교육의 흐름 3』. 공주대학교출판부.
- 김산하(2016). 『김산하의 야생학교』. 갈라파고스.
- 하재영(2018).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 창비.
- 마크 베코프(2019). 『개와 사람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한 뼘 더 깊은 지식』 (원제: Canine Confidential). 동녘사이언스.
- 미우라 겐타(2018). 『그 개가 전하고 싶던 말』. 라이팅하우스.
- 최성용(2017). 『시티 그리너리』. 동아시아.
- 백희나(2019). 『나는 개다』. 책읽는곰.
- 정우열(2019). 『노견일기1』. 동그람이.
- 황경택(2019). 『만화로 떠나는 우리 동네 식물여행』. 뜨인돌출판사.

논문

- 이은하(2013). 「박조열 희곡의 '동물'과 생태적 감수성」. 『현대문학이론연구』 55권 55호.
- 한면의(2008). 「한국 생태주의의 흐름과 현황」. 『문화과학』 56호. 문화과학사. 2008년 겨울.
- Helen Kopnina, Mickey Gjerris(2015). 「Are Some Animals More Equal than Others? Animal Rights and Deep Ecology in Environmental Education」. Canadia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v20. 2015.
- Tom Regan(1986). A case for animal rights. In M. W. Fox & L. D. Mickley (Eds.), Advances in animal welfare science, Washington, DC: 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1986.

보고서

- 노희정(2013). 「생태학적 자아의 정립과 생태학적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 환경철학 16권0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2019).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주이 및 이용행태 분석, KISDI STAT Report(온라인 정기 간행물), 2019년 5월 30일에 배포된 보고서

기타자료

- 하승수(2013). 동물권 담론이 기존 법에 던지는 질문들.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자료집.

기사

- 유승목. “[유승목의 개인주의]너와 나의 연결고리...’인권’은 ‘동물권’과 피를 나눴다”. 머니투데이. 2018. 8. 30.
- 박정희. “[메아리]잡식 인간이 고민하는 동물의 권리”. 새전북신문. 2015. 5. 3.
- 박원경. “[마부작집] 유기동물을 부탁해 ② 가장 많이 버려진 반려동물 종은?”. SBS뉴스. 2017.10.2.
- 고은경. “떠돌이 개 ‘상암이’의 안타까운 죽음”. 한국일보. 2018. 10. 8.

영화

- 오성윤, 이춘백 연출. “언더독”. 2019. 1. 16. 개봉.

기타

- 동물복지넷. @aniko_welfare. 트위터. 2017년 8월 11일.

부록1 :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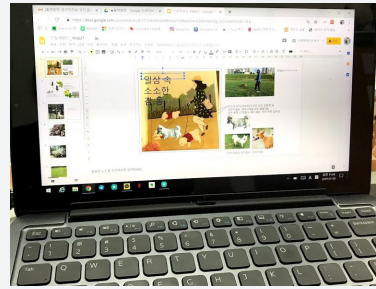
〈2장의 담고자 하는 이야기 요소 탐색 : 수집한 자료에서 도출된 이야기 요소들〉을 바탕으로 기획한 콘티부터 스케치를 갈무리했다.

콘텐츠 요소 도출 : 박지연

〈2장의 담고자 하는 이야기 요소 탐색 : 수집한 자료에서 도출된 이야기 요소들〉

콘티 기획 및 구성 : 박지연

글과 그림으로 표현 〈69~72쪽 표 1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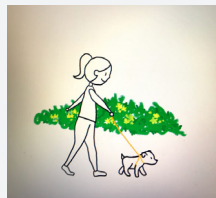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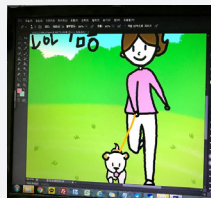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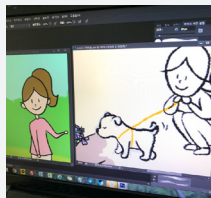


밀그림 스케치(스케치북+연필, 펜) : 김룻

콘티를 기반으로 일러스트 초안 작업
(콘티 현실화 작업의 첫 단계)
〈69~72쪽 표 2열〉



전체적인 스타일 잡기 :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으로 스케치 선 종류, 채색톤 설정



본 스케치(포토샵 작업) : 김룻

밑그림 스케치를 스캔하여 포토샵에서 불러와서 태블릿으로 스케치 작업
<69~72쪽 표 3열>



채색(포토샵 작업) : 김룻

본 스케치 버전에 채색 작업
토의를 통해 수정 후 일러스트 작업 완료
<69~72쪽 표 4열>



글 작업 : 박지연

일러스트에 콘터를 기반으로 글과 대사
삽입하기 <69~72쪽 표 4열>



감수받기 & 수정 : 박지연

환경교육 전문가와 그린 디자이너에게 일러스트와 글, 대사 표현과 주제에 대한 감수 받고 수정 작업 및 완성 <69~72쪽 표 4열>



SNS게시



부록2: 1편 - 일상 속 생태적 감수성의 작업 과정물

콘티 ▶ 밑그림 스케치 ▶ 본 스케치 ▶ 완성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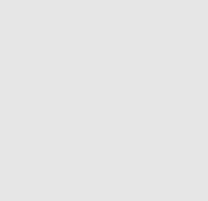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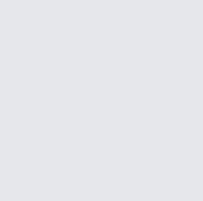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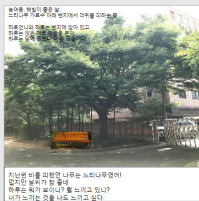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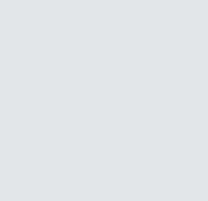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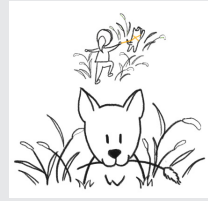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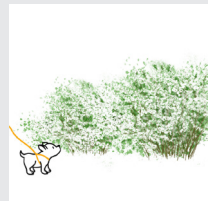
<p>현관에서 발의 방향을 바꿔나가는 두루술 발걸음 기운 달콤한 냄새</p> <p>모니터 앞에서 멍하게서 잡내에 휘둘리는 두루술 달콤한 영안</p> <p>반죽을 분당천천 상태로 뒤근 하는 두루술</p> <p>달콤한 영안에서 영안과의 느껴, 달콤의 조그마한 달콤프리카 이어서 밑그림진 할음</p> <p>무미진진한 차류차류, 지개취.</p>			
<p>최근 한 이가 강아지나 새우 등으로 유명한 날 강아지(또는 새우)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먹기 위해 복숭아를 먹기 위해 복숭아를 먹기</p> <p>일상 속 소소한 감동.</p>	<p>일상 속 소소한 감동.</p>	<p>일상 속 소소한 감동.1</p>	<p>일상 속 소소한 감동.1</p> <p>복숭아를 좋아하니까 강아지한테도 복숭아를 먹여줘야지</p> <p>복숭아를 좋아하니까 강아지한테도 복숭아를 먹여줘야지</p>
<p>차이점은 복숭아를 좋아하는 강아지입니다. 복숭아를 좋아하는 강아지입니다. 복숭아를 좋아하는 강아지입니다. 복숭아를 좋아하는 강아지입니다. 복숭아를 좋아하는 강아지입니다.</p> <p>일상 속 소소한 감동.</p>			<p>복숭아를 좋아하니까 강아지한테도 복숭아를 먹여줘야지</p> <p>복숭아를 좋아하니까 강아지한테도 복숭아를 먹여줘야지</p>
<p>복숭아를 좋아하는 강아지입니다. 복숭아를 좋아하는 강아지입니다. 복숭아를 좋아하는 강아지입니다. 복숭아를 좋아하는 강아지입니다. 복숭아를 좋아하는 강아지입니다.</p> <p>일상 속 소소한 감동.</p>			<p>복숭아를 좋아하니까 강아지한테도 복숭아를 먹여줘야지</p> <p>복숭아를 좋아하니까 강아지한테도 복숭아를 먹여줘야지</p>
<p>복숭아를 좋아하는 강아지입니다. 복숭아를 좋아하는 강아지입니다. 복숭아를 좋아하는 강아지입니다. 복숭아를 좋아하는 강아지입니다. 복숭아를 좋아하는 강아지입니다.</p> <p>일상 속 소소한 감동.</p>			<p>복숭아를 좋아하니까 강아지한테도 복숭아를 먹여줘야지</p> <p>복숭아를 좋아하니까 강아지한테도 복숭아를 먹여줘야지</p>

콘티

▶ 밑그림 스케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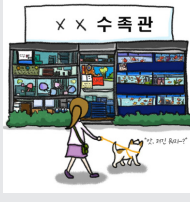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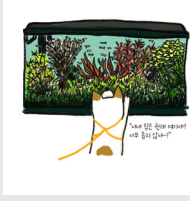




본 스케치 ▶

완성본



부록3: 2편 - 일상 속 동물권 이야기 작업 과정물

콘티 ▶ 밑그림 스케치 ▶ 본 스케치 ▶ 완성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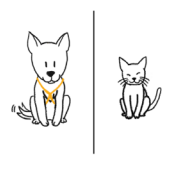




<p>일상 속 소소한 감.동</p> 	<p>일상 속 소소한 감.동</p> 	<p>일상 속 소소한 감.동.2</p> 	<p>일상 속 소소한 감.동.2</p> 
			
<p>XX수족관</p> 	<p>XX수족관</p> 	<p>XX수족관</p> 	<p>XX수족관</p> 
			
			

콘티

▶ 밑그림 스케치

▶ 본 스케치

▶ 완성본

<p>"넌가 뭐하는 대로 행복해?" 고양이 울러주면 하루를 보며 새끼 낳는 고양이 "넌나 중생?"</p>  <p>하루는... '여가 인생하세요. 월드 양조기요?'</p>			<p>"날리도 마르도든 여왕이 뭐야?" "하루는...?"</p>  <p>"하루는...?"</p> <p>"하루는...?"</p>
<p>현안이상할이가 하루 할일이 보세 하는 모습 노감할계 재료가 들어가 있어, 찾아볼게로 사용할 계가 있어서 '하루는...?' "하루는...?"</p> <p>하루: "물론 지난 여름부터 보세는 날 할만한 날입니다." 현안: "그래 나는 재료가 필요해서 할게 살았지만 지금은 새 가족과 새 이름이 있잖아."</p>			<p>"하루는...?" "하루는...?"</p>  <p>"하루는...?"</p>
<p>현안이상할이가 하루가 또 일하는 모습을 보며 '하루는...?' "하루는...?"</p> <p>하루: "그래 나는 재료가 필요해서 할게 살았지만 지금은 새 가족과 새 이름이 있잖아."</p>			<p>"하루는...?" "하루는...?"</p>  <p>"하루는...?"</p>
<p>현안이상할이가 하루가 또 일하는 모습을 보며 '하루는...?' "하루는...?"</p> <p>하루: "그래 나는 재료가 필요해서 할게 살았지만 지금은 새 가족과 새 이름이 있잖아."</p>			<p>3학년 1학기 그림 -</p>  <p>유기동물보호소 사생활과 합성해본다.</p>
<p>to be continued</p> <p>"동물 친구들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p>  <p>말 못하는 존재에게 목소리를 부여한다는 것들이 무수 많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까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책은 아니다.</p>			<p>현안이상할이가 하루가 또 일하는 모습을 보며 '하루는...?' "하루는...?"</p> <p>하루: "물론 지난 여름부터 보세는 날 할만한 날입니다." 현안: "그래 나는 재료가 필요해서 할게 살았지만 지금은 새 가족과 새 이름이 있잖아."</p>  <p>"말 못하는 존재에게 목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들이 무언을 하는 이유는 책이 아니라 언어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책은 아니다.</p>